

대학생의 ADHD 성향 군(群) 탐색과 놀이성과의 관계*

조 미 정¹⁾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ADHD 성향 군(群) 탐색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축형 성인 ADHD평정척도와 놀이성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첫째, 놀이성의 하위변인 중 쾌활성과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ADHD 변인은 부주의 및 기억문제, 과잉행동 및 초조함, 자기개념 문제였다. 즉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과잉행동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자기개념문제였다. 마지막으로 기발성에 대해 ADHD의 모든 하위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ADHD 성향은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 'ADHD가 거의 없는 군(群)'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이 쾌활성과 상상력 그리고 기발성이 높은 편이었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과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은 즉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ADHD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놀이성, ADHD 성향, 대학생, 군(群), 하위유형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상담심리학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I. 서 론

최근 ADHD 특성을 지닌 아동, 청소년, 성인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ADHD는 7세 이전에 발병하는 아동정신질환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장애의 부적응적인 문제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라진다고 생각되었으나, 점차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기능장애임이 밝혀지며 성인기 ADHD에 대한 관심도 또한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Barkley, 1997; Murphy & Barkley, 1996).

Polanczyk, de Lima, Horta, Biederman과 Rohde (2007)는 ADHD 관련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전 세계 정상 아동 및 청소년의 ADHD 유병률은 5.29%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ADHD 실 진료 환자수가 2003년에 비해 23.8% 증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 중 10-14세 남자가 38%로 가장 높았고, 5-9세 남자 28.4%, 15-19세 남자 12%로 보고되어 ADHD가 더 이상 아동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기 ADHD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통계에 따르면(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20세 이상 성인의 ADHD 진단 비율이 2008년도 801명에서 2012년도 2290명으로 2.86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서도 성인기 ADHD의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승희, 2014).

ADHD 증상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과잉활동은 감소하고 주의력과 충동조절 능력이 향상되에도 불구하고 또래에 비해 부적절한 증상을 나타내고, 그 중 25%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한유진과 윤보람(2011)은 ADHD 아동은 모래상자 활동이 활발한 반면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활동이 많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유급, 퇴학, 비행 등 학업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속되고, 정서적 문제가 증가되어 우울, 낮은 자아 존중감,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 2000; 신민영, 김호영, 김지혜, 2005). 특히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ADHD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학업 및 직무수행의 저조,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우울 정서 조절의 문제, 약물남용, 취업의 어려움 등이 있고, 연령이 증가하여 가정을 가진 성인들의 경우 안정적 양육의 어려움, 가사 일에 대한 조직화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Barkley, Fischer, Smallish & Fletcher, 2002; Mannuzza & Klein, 2000; Weiss & Hechtman, 199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ADHD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이들의 긍정적 특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onos-Webb(2003)은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창의성, 사람에 대한 직관력, 정서적 민감성, 살아있는 것에 대한 교감,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지녔다고 한바 있다. 그 보다 앞서 Hartmann(2003)은 ADHD로 진단되는 아이들을 장애가 아니라 기질적 특성으로 봐야 하며 인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들을 사냥꾼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로 표현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자극에 쉽게 끌리며, 방관자처럼 굴거나 상식을 초월하고 쉽게 따분함을 느끼거나 충동적이며 모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은 모든 것에 주의가 열려 있는 융통성과 개방성, 벌어진 상황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용기를 지녔는데 이는 오늘날 성공한 CEO들이 가진 기질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창의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놀이나 일에 적용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Garmegy, 1985). Weiss(1997)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유명한 화가이지만 67년 동안 그린 그림이 겨우 17점뿐이라고 하며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점을 다른 영역에 관심이 많아 하나의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채 다른 과제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일을 꾸미는 성향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즉 많은 관심사와 생각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실제 결과로 구현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이영나(2006)의 연구에 의하면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독창성이 높고 추상성, 유창성 등의 창의적 사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DHD 성향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유머가 높으며 호기심과 상

상력, 자기 확신과 모험심이 높아 창의적 인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연구들(김봉년, 2002; 최수경, 2005; Cramond, 1994; Weiss, 1997)에서도 ADHD 성향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창의적 인성 영역 중 적극성과 호기심, 상상, 모험심의 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재해석해 보면 적극성과 모험심, 자기 확신은 ADHD 성향 아동의 부산하며 새롭고 재미있는 일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려는 도전 정신(김봉년, 2002),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또한 남과 달라지는 결과에도 개의치 않고, 실패에 기꺼이 대처하려는 성향, 지나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열성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과잉 운동과 충동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영나, 20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DHD 성향을 가진 사람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주장과 연구들은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대부분, 창의성이나 사고의 유연성, 적극성, 상상력, 정서적 민감성 등이었다. 이를 하나의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구인과 연결시키자면 놀이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보여 진다. 놀이성이란 놀이 행동에 대한 성향 내지는 태도를 일컫는 심리학적 구인(Barnett, 1990; Csikszentmihayli, 1979; Lieberman, 1965; Rogers, 1988; Singer, Singer & Sherrod, 1980)으로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의 활동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이라고도 정의되어진다(Glynn & Webster, 1993). 선행연구에서 밝힌 ADHD 성

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의 긍정적인 측면이 놀이성의 개념 및 하위속성과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Glynn과 Webster (1993)가 놀이성의 하위구인으로 소개한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과는 대부분이 연결성이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연구뿐만 아니라 ADHD와 놀이성 하위구인들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거나 연구한 학자들은 많다.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ADHD 성향과 놀이성과의 관련성을 연관 지어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의력이 높고 자신의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Davis, 1996). 과잉 활동은 심리적 과잉 흥분상태(overexcitability)로 정신운동, 감각, 지적, 상상, 정서의 5가지 형태를 통해 개인의 발달적 잠재력을 높인다. Cramond(1994)는 정서 과잉 흥분성은 과잉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과잉흥분성이 높다(Piechowski, 1985)는 점을 강점 측면으로 본다면 활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이영나, 2006). 활력이 있는 ADHD 아동들은 놀이성이 풍부하고 열정적이며 주변을 재미있게 한다. 즉 과잉 활동을 분출하는 생명력,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점을 장애로 간주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Honos-Webb, 2005).

그리고 Shaw(1992)는 ADHD 아동의 주의력과 집중력의 부족은 백일몽과 잘 듣지 않는 성향이나 내적 사고와 마음속에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상상들에 몰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백일몽은 헛된 공상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산적이

고 창의적인 내적 사고나 이미지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기도 한다. 이외에도 개방성과 백일몽과 같은 상상력은 창의적 능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영나, 2006). 이러한 백일몽과 내적 상상을 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때 종이에 쓰거나 실험을 하지 않았고 실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Cramond, 1994).

이러한 특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White와 Shah (2006)은 대학생 ADHD 집단을 대상으로 ADHD 성향과 사고 특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DHD 대학생들은 특정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 생각들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일반화하는 능력인 확산적 사고가 비 ADHD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ADHD적 특성을 가진 성인의 긍정성에 대해 Hartmann(1997)은 ADHD 특성을 가진 사람의 산만함을 인지적 융통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 가지 아이디어를 다른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영역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ADHD 성향을 가진 성인의 긍정적 특성들은 대부분 놀이성의 특성과 공통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놀이성을 하나의 연구변인으로 보고 직접 그 관련성을 다루고 연구된 것은 드물다. 특히 성인의 경우, 실행기능 조절능력이 아동, 청소년들에 비해 높고, 주의력 결핍의 증상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집중이 가능하다(Dillo et al., 2010)는 점을 감안하면 ADHD 성향을 지녔더

라도 놀이성은 더욱 더 긍정적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ADHD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의 차이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ADHD 집단을 혼합형, 부주의 우세형, 과잉행동-충동 우세형(진현, 2008)으로 나눈 경우, ADHD 고위험군을 과잉행동-충동성을 동반하지 않는 부주의성 유형(ADHD-1)과 과잉행동-충동성을 동반한 유형(ADHD-HI/C), 정상군(박해송, 최은주, 2005), 주의력 결핍 우세형과 복합형(장원석, 홍성도, 정유숙, 2006), 과잉운동 충동적 우세형, 혼합형,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영나, 2006) 등으로 분류되어 창의적 사고나 다른 인지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해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 간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개념전환 능력이 성인 ADHD 과잉행동-충동 우세형 집단이 성인 ADHD 혼합형 집단이나 부주의 우세형 집단과 비교하여 더 낮게 나타난 결과(진현, 2008),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복합형에 비해 자기초월 점수가 낮아 상상력이나 참을성이 부족한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장원석 등, 2006), 그리고 과잉운동 충동적 우세형이 혼합형에 비해 독창성이 높고 이들 두 집단은 주의력 결핍 우세형보다 높다는 결과(이영나, 2006), 충동성을 동반한 유형이 부주의 유형보다 일반적 활동 수준이 높고 부주의 유형이 정상군에 비해 활동성이 높았다는 결과(박해

송, 최은주, 2005) 등이 대표적이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일반 대학생이나 성인 집단의 ADHD 성향을 분류하여 놀이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ADHD 성향이 어떠한 집단으로 구분되는지를 탐색하고, ADHD 성향이 놀이성 하위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며, 마지막으로 탐색된 집단을 준거로 다차원적 집단 특성에 따른 놀이성 변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의 연구결과들을 기본 근거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ADHD 하위변인을 준거로 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놀이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ADHD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진로 및 대인관계, 학교생활적응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담현장에서도 치료자들이 내담자의 긍정적 자원을 찾고 변화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ADHD 성향은 어떠한 군(群)으로 분류되는가?
- 2) 대학생의 ADHD 성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대학생의 ADHD 성향 군(群)에 따라 놀이성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남, 광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 2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405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질문지를 제외한 4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학적 분포는 남자 대학생은 149명으로 37.3%, 여자 대학생은 251명으로 62.8%를 차지하였다. 학년구성은 1학년이 290명으로 72.5%, 2학년은 110명으로 27.5%이었고, 학부계열은 (무응답 2명) 인문계열이 182명, 45.5%이었고, 사회 및 경영계열이 60명 15%, 이·공학계열이 64명 16%, 예체능계열이 14명, 3.5%, 의학계열이 69명, 17.3%, 그리고 가정 및 생활계열과 기타계열이 9명, 2.7%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성인의 ADHD 평정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ADHD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Conners, Erhart와 Sparrow (1999)의 성인 ADHD 평정척도(CAARS)중 단축형을 장문선(2008)이 번안하여 대학생에 대상으로 국내에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하위변인은 부주의 및 기억문제, 과잉행동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자기개념문제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신뢰도 Cronbach α 는 각각 .68, .59, .74, .78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값이 높을수록 하위변인의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의 놀이성 평정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Glynn과 Webster(1992)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를 박현숙(2003)이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Glynn과 Webster(1992)는 자발성, 표현성, 유쾌함, 창의성, 순수성의 총 25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박현숙(2003)이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22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의 7점 척도로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4개 하위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신뢰도 Cronbach α 는 각각 .93, .64, .76, .67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 하위변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전남 광주 지역 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1일에서 14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교수나 강사가 허락한 전공 및 교양필수 강좌에 연구자가 직접 들어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질문지 배부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 이루어졌고, 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총 420부 중 응답이 부실한 20부를 제외한 400부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ADHD 성향 군(群)을 탐색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적률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DHD 성향 군(群)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Version 19을 이용하였다.

중간치에 해당하는 2.50을 근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표준편차는 .45~.61의 분포를 보였다. 놀이성의 하위변인은 대체적으로 7점 척도의 이론평균 4점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상상력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준편차는 1.00~1.15의 분포를 보였다.

2. 대학생의 ADHD 성향 군(群)탐색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ADHD 성향을 공통적으로 지닌 집단을 추출하였고, 그 특성에 맞는 집단 명을 부여하였다. 군집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설명변수로 사용된 4개의 하위변인을 동일한 중요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평균 0, 표준편차를 1로 하는 정상분포에 따른 표준점수로 전환하였다. 또, K 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진 군집의 수를 지정하되 먼저 군집 수를 2개 이상으로 지정해 준 다음, 생성된 군집의 종류를 모두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고 군집의

III.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의 하위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ADHD 성향은 대부분의 하위변인 평균은 4점 척도에서

표 1. 각 하위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인	하위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DHD 성향	부주의 및 기억문제	1.00	4.00	2.40	.51
	과잉행동 및 초조함	1.00	4.00	2.46	.45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1.00	4.00	2.24	.56
	자기개념문제	1.00	4.00	2.47	.61
놀이성	쾌활성	1.90	7.00	4.99	1.11
	상상력	1.33	7.00	5.16	1.02
	즉흥성	2.00	7.00	4.52	1.00
	기발성	1.67	7.00	4.52	1.15

표 2. ADHD 군(群)별 표준화된 점수

표준점수(Z)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부주의 및 기억문제	.24	1.31	-.51	.18	-1.45
과잉행동 및 초조함	.70	1.04	-.02	-.56	-1.37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68	1.08	-.63	-.04	-1.17
자기개념문제	.03	1.17	-.60	.56	-1.53

특성이 가장 명확한 결과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ADHD 성향 군(群)은 5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는 각 집단에 해당하는 4개 하위변인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집단 1은 ADHD의 모든 하위변인의 표준점수가 자기개념 문제를 제외하고 평균 0보다 다소 상회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과잉행동 및 초조함과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집단 1을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 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으로 명명한다. 집단 2는 ADHD의 모든 하위변인의 표준점수가 평균 0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양의 값을 보여 ADHD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집단 2를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으로 명명한다. 집단 3은 ADHD 하위변인들이 거의 평균 0보다 충분히 하회하는 특징을 보이나 과잉행동 및 초조함만이 다른 하위변인보다 상대적으로 0에 근접하여 하회하며, 다른 하위변인과 .50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집단 3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으로 명명한다. 집단 4는 ADHD 하위변인들이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인

부주의 및 기억문제와 자기개념문제는 평균 0을 충분히 상회하나 정서 행동적 특성을 포함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과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은 평균 0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하회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집단 4는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ADHD 모든 하위변인이 평균 0을 중심으로 확연히 낮은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어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으로 명명하였다.

표 3에서는 각 군집에 해당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의 ADHD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군집분석결과로부터 각 집단 특성에 맞는 군(群)명을 부여한 결과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ADHD 군(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 집단으로 전체에서 26.3%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 26.0%로 많았다. 그리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이 20.8%,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이 15.5%였고, 11.5%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으로 나타났다.

표 3. 군(群)별 해당 수와 백분율

군(群)명		해당 수	백분율(%)
ADHD 군(群)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	83	20.8%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	62	15.5%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	105	26.3%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	104	26.0%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	46	11.5%
전체		400	100%

2.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과의 관계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과의 상호 상관관계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쾌활성은 부주의 및 기억문제($r = -.30, p < .001$)와 자기개념문제($r = -.30,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과잉행동 및 초조함($r = .12, p < .05$)과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상상력의 경우, 부주의 및 기억문제($r = -.19, p < .001$)와 자기개념문제($r = -.21,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즉흥성의 경우는 과잉행동 및 초조함($r = .22, p < .001$)과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r

$= .18,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발성은 쾌활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부주의 및 기억문제($r = -.22, p < .001$)와 자기개념문제($r = -.29,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과잉행동 및 초조함($r = .13, p < .05$)과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의 ADHD 성향의 놀이성에 대한 영향력

놀이성 하위변인 각각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놀이성 하위변인 중 쾌활성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회귀모형($F = 27.73, p < .001$)은 .001수준에서

표 4.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놀이성과의 상관관계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부주의 및 기억문제	-.30***	-.19***	.05	-.22***
과잉행동 및 초조함	.12*	.07	.22***	.13*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04	-.02	.18***	-.02
자기개념문제	-.30***	-.21***	-.02	-.29***

* $p < .05$. *** $p < .001$.

표 5. 대학생의 ADHD 성향의 놀이성에 대한 영향력

설명변수	준거변수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β	β	β	β
부주의 및 기억문제		-.35***	-.21***	-.04	-.21***
과잉행동 및 초조함		.32***	.18**	.20***	.27***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11	.09	.18**	.12*
자기개념문제		-.26***	-.19**	-.16*	-.32***
F 값		27.73***	9.86***	8.27***	20.76***
R^2		.21	.08	.07	.17

* $p < .05$. ** $p < .01$. *** $p < .001$.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로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부주의 및 기억문제($\beta = -.35, p < .001$)가 가장 유력한 설명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과잉행동 및 초조함($\beta = .32, p < .001$), 마지막으로 자기개념문제($\beta = -.26, p < .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쾌활성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설명력은 21.1%로 나타났다.

상상력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회귀모형($F = 9.86, p < .001$)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력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부주의 및 기억문제($\beta = -.21, p < .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개념문제($\beta = -.19, p < .01$)와 과잉행동 및 초조함($\beta = .18, p < .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력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

즉흥성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회귀모형

($F = 8.27, p < .001$)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성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과잉행동 및 초조함($\beta = .20, p < .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beta = .18, p < .01$)이 높았으며, 자기개념문제($\beta = -.16,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즉흥성에 대해 부주의 및 기억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흥성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설명력은 6.8%로 나타났다.

기발성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회귀모형($F = 20.76, p < .001$)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성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자기개념문제($\beta = -.32, p < .00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잉행동 및 초조함($\beta = .27, p < .001$), 부주의 및 기억문제($\beta = -.21, p < .001$)이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beta = .12,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기발성에 대한 ADHD 하위변인의 설명력은 16.5%로 나타났다.

3. 대학생의 ADHD 군(群)에 따른 놀이성 차이

ADHD 군(群)에 따른 놀이성 하위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쾌활성($F = 16.07, p < .001$), 상상력($F = 5.02, p < .01$), 즉흥성($F = 3.81, p < .01$), 기발성($F = 8.95, p < .001$) 모든 하위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쾌활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M = 5.43$)'과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M = 5.39$)', 그리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M = 5.13$)'이 동질 집단으로 높은 쾌활성을 보였고,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M = 4.71$)'과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M = 4.41$)'이 동질집단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상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M = 5.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M = 5.31$)', 그리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M = 5.22$)'이 동질 집단으로 높은 상상력을 보였고,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M = 5.02$)'과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M = 4.85$)' 순으로 낮은 상상력을 보였다.

즉흥성의 경우,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M = 4.74$)'과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M = 4.73$)'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동질 군(群)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M = 4.54$)'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표 6. 대학생의 ADHD 군(群)에 따른 놀이성 차이

변인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M	SD	M	SD	M	SD	M	SD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	5.13(A)	1.02	5.22(AB)	.96	4.74(A)	.92	4.53(AB)	1.16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	4.71(B)	1.22	5.02(BC)	1.20	4.73(A)	1.12	4.27(BC)	1.11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	5.43(A)	.93	5.43(A)	.82	4.54(AB)	.88	4.77(A)	1.10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	4.41(B)	.98	4.85(C)	1.00	4.27(B)	.92	3.98(C)	.89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	5.39(A)	1.16	5.31(AB)	1.12	4.31(B)	1.27	4.86(A)	1.40
F 값	16.07***		5.02**		3.81**		8.95***	

주. A, B, AB는 Duncan, ** $p < .01$. *** $p < .001$.

보인 집단은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M = 4.31$)'과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 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M = 4.27$)'이었다.

기발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M = 4.77$)'과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M = 4.86$)'이 동질집단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M = 4.53$)'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M = 4.27$)'과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M = 3.9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ADHD 성향을 탐색하고 놀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대학생의 ADHD 성향을 군집으로 분류하여 탐색하고, ADHD 성향이 놀이성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으며, 분류된 군집에 의해 놀이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ADHD 하위변인 4개를 준거로 하여 집단을 분류한 결과 총 5개의 군(群)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

능성 군(群)',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경우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과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집단 군(群)',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이 대학생 집단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군(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과 정적으로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해송과 최은주(2005)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위유형을 구분한 바 과잉행동 충동성을 동반하지 않는 부주의 유형,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동반한 유형, 정상군의 분류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신민섭(2000)에 의해 ADHD 진단범주에 속한 복합성 부주의형, 과잉행동 충동성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진현(2008)의 연구에서 ADHD집단과 비ADHD집단을 구분하고 ADHD집단을 다시 혼합형, 부주의 우세형, 과잉충동 우세형으로 구분한 연구와도 일부분이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ADHD 증상 군(群)에 속했던 아동들이 대학생으로 연령이 높아짐으로 어느 정도의 조절력이 생기기 시작하여 다소의 성향이 보이는 군(群)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동기에 ADHD로 진단 받은 80%는 청소년기에도 임상적 진단기준을 계속 충족

시키고 67%정도는 성인기까지 ADHD 증상이 감소되어진다는 연구(Fisher, 1985; Weiss & Hechtman, 1993)를 지지한다.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선행연구의 경우, ADHD 군(群)을 분류함에 있어 대부분 아동청소년 대상의 DSM IV의 진단 범주에서 제시한 혼합형, 부주의 형, 과잉행동과 충동형 등으로 주로 나누거나 여기에 정상군을 추가하여 집단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하되 일반 대학생들로부터 추출된 경험적 자료에 의해 보다 세분화되고 정상집단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특성을 추출하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유사점은 ADHD의 인지적 특성만이 높거나 정서행동만이 높거나 또는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향을 지닌 점이고 차이점은 선행연구에서는 부주의나 과잉행동성이 분명히 우세한 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약간의 높고 낮음의 차이나 다른 특성들 간의 상대적 차이를 초점화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을 표집 하여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적 특성을 보다 면밀히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놀이성의 하의 변인 중 쾌활성,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ADHD 성향 중 부주의 및 기억문제와 과잉행동 및 초조함 그리고 자기개념 문제였다. 부주의와 기억 문제 및 자기개념문제가 높을수록 쾌활성, 상상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높을수록 쾌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쾌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박해송과 최은주(2005)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동반한 유형이 부주의의 유

형보다 일반적 활동 수준이 높고 부주의 유형이 정상군에 비해 활동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ADHD 고위험군과 부주의 유형, 과잉행동군, 정상군의 기분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는 불일치한다. 박해송과 최은주(2005)는 연구대상이 청소년이었고 본 연구대상은 대학생이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White와 Shah(2006)가 성인 ADHD 집단의 창의성에 대해 보고한 ADHD 문제를 가진 대학생 집단은 비 ADHD 집단에 비해 확산적 사고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성인 ADHD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선행 연구와 비교 논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ADHD 집단이 일반집단의 아동에 비해 호기심, 상상력 등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들과는 일부분이 일치한다(김봉년, 2002; 이영나, 2006; 최수경, 2005; Cramond, 1994; Weiss, 1997).

셋째, 즉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잉행동 및 초조함,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개념 문제가 낮을수록 즉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원주영(2005)은 ADHD 대학생 대상 집단을 멈춤 신호 과제를 통해 억제결함과의 관련성을 밝혔는데 ADHD 집단의 반응 억제가 통제집단에 비해 결여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장원석 등(2006)은 ADHD 환아들이 정상군에 비해 자극추구 모험추구 충동적 경향이 높고 인내력이 낮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일에 있어 즉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ADHD 환자군이 정상 통제군보다 과제에서 더 빠른 반응시간과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며, 유리나(2015), Liddle, Kiehl과 Smich (2001)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Liotti, Pliszka, Higgins, Perez와 Semrud-Clikeman (2010), Smith, Johnskone과 Barry(2004)가 정상군에 비해 ADHD 환자군이 더 빠른 반응 시간을 보인다는 관찰결과와도 유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ADHD 환자군이 반응억제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 변인인 즉흥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넷째, 놀이성의 하위변인 중 기발성은 ADHD 성향 하위변인 모두와 연관이 있었는데 부주의 및 기억 문제, 자기개념이 낮고 과잉행동 및 초조함과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기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경우 부주의 및 기억 문제나 자기 개념문제가 높을 경우 전반적으로 놀이성은 떨어져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과잉행동 및 초조해하는 성향을 가졌거나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놀이성이 풍부해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 즉, 부주의 및 기억 문제를 가졌거나 자기개념 문제를 가진 대학생들은 놀이적 성향 행동이 낮아 보이고 과잉행동 및 초조한 행동성향을 보이거나 충동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쾌활하고 즉흥적이고 상상력과 기발성이 높아 재미있고 활기찬 사람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ADHD 성향 중 과잉행동과 충동적이고 에너지적인 성향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긍정적 성향으로 잘못 해석되거나 긍정적 자원으로 해석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는 반대로 쾌활하고 활기찬 기질을 가진 대학생이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과잉 행동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도 대학생의 생활지도 면담 시 놀이성이 높은 행동성향과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구별하여 파악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ADHD 군(群)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쾌활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과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이 쾌활성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과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은 쾌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ADHD 성향이 거의 없거나 조금 있거나 약간의 과잉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집단 분위기를 높이는 행동이 대인관계에서 강화되어 쾌활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두드러지게 ADHD 성향이 보이고 부주의나 기억문제로 인한 실패, 자기 개념문제를 가진 군(群)의 경우 부정적 피드백이나 실패 좌절감으로 상대적으로 쾌활성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쾌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박해송과 최은주(2005)가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동반한 유형이 부주의 유형보다 일반적 활동 수준이 높고 부주의 유형이 정상군에 비해 활동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ADHD 고위험군과 부주의 유형, 과잉 행동군, 정상군의 기분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는 불일치한다. 박해송과 최

은주(2005)는 연구대상이 청소년이었고 본 연구대상은 대학생이란 점에서 그 차이점의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겠다.

여섯째, 상상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과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이 가장 높았고,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이 상상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강동화(2012)가 산만하거나 과잉행동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사람에 비해 잠재억제 기능이 낮아 사소한 일이라도 새롭게 느끼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상상력은 작은 자극들을 중요하고 새롭게 느끼며 사고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특성을 지니는 의미이고, 잠재억제 기능은 새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자극을 무시하는 우리 뇌 속의 기능으로 상상력과 반대되는 측면을 지닌다. 이영나(2006)가 ADHD 성향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호기심과 상상력이 높아 내적인 사고와 심상에 매우 집중력을 보이며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White & Shah, 2006)에서도 대학생 ADHD 집단은 여러 생각들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일반화하는 능력인 확산적 사고가 비 ADHD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능력을 보임을 연구한 바 있다. 그와는 반대로 부주의와 기억문제를 가졌거나 자기개념 문제를 가진 경우 인지적으로 경직되어있고 행동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상상력을 맘껏 발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ADHD 성향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과잉행동이 있거나 다소의 'ADHD 성향이 있는 군(群)'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행동과 생각이 자유롭고 상상력과 관련된 창의적인 면이 일상에서 강화되거나 장점으로 발휘되어 촉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틀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곱째, 즉흥성은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이 높게 나타났고 'ADHD 성향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ADHD 대학생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반응 억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 원주영(2005)의 결과와 일치하고 장원석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 ADHD 환아들이 정상군에 비해 자극추구, 모험추구, 충동성 경향이 높고 인내력이 낮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또 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중 ADHD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과제에 더 빠른 반응시간을 보인다는 것과 일치한다(유리나, 2015; Liddle et al, 2001; Liotti. et al, 2010; Smith et al, 2004). 이는 전반적으로 ADHD 증상을 가졌거나, 과잉행동증상을 보인 군(群)이 증상이 없거나 부주의와 기억문제를 가진 군(群)에 비해 반응 억제 능력이 차이가 있어 놀이성 특성 중 즉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덟째, 기발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있을 잠재군(群)'과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

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군(群)'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ADHD 성향이 있는 군(群)과 없는 군(群)' 간에 기발성의 양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박해송, 최은주, 2005; 정은정, 2004)에서 ADHD 집단과 비 ADHD 집단 간의 인지적 융통성의 차이가 없고 ADHD 고위험군과 정상군에 따라 융통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 상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접근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ADHD 군(群)에 따른 놀이성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유사한 설계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직접비교 논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임상군과 정상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유사변인의 차이점을 보았기 때문에 일반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온 'ADHD 성향이 거의 없는 군(群)'은 선행연구의 정상 군(群)과 견주어 약간의 부주의와 기억 자기개념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선행연구에서의 부주의 유형과, '약간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향이 있을 가능성 군(群)'은 선행연구에서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동반한 유형으로, 본 연구의 'ADHD 특성을 전반적으로 지닐 가능성 군(群)'은 선행연구의 혼합형 집단과 유사집단으로 보고 비교하였다. 이에 각각의 상응하는 집단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유사한 변인들이 차이를 보이는데 초점화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를 바탕으로 다른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군(群) 탐색이 필요하고, 다른 변인에 대

한 차이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ADHD 연구가 그들의 부정적 특성이나 심리발달에 대한 병리적 영향을 밝혀 온 관점과는 반대로 ADHD 특성을 장애가 아닌 하나의 기질적 특성으로 보고 긍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몇몇 선행연구들(박해송, 최은주, 2005; 이영나, 2006; 정은정, 2004)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부분적으로 창의적 인성, 창의적 사고, 정서적 민감성 등을 다루어 놀이성이라는 하나의 연구변인으로 추출하여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긍정적 심리발달 특성을 밝히고자 놀이성 변인을 밝힌 것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지루해 하고 그들과는 다른 새롭고 참신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성향이 있고 (Barron, 1988), 재미있는 행동을 자주한다는 점, 상황을 재미있게 느끼며 스트레스나 긴장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점(이영나, 2006)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 또는 부모들은 이들의 행동적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기발성이나 쾌활성 등을 인정해 주어 자기 유능감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아동기 때부터 경험해 온 자신의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자기 유능감이 떨어지고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DHD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 그들의 특성으로 인한 강

점과 단점을 탐색하고 이해시켜 강점 활용을 극대화시키도록 돕고 집중력이나 조직화와 같은 부족한 면을 연마시키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김나나(2003)는 교실환경에서 학생의 유머를 교사가 이해해주고 학습지도에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이해를 돕고 의미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며 주의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놀이성이 높은 행동특성을 수업에서 토론, 발표, 역할놀이 등에 활용하였을 때 학습 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활동이 창출되며 확산적 사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DHD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면인 놀이성을 인정해주어 활동한다면 강의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참여자들의 적극성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연구의 의의와 임상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행연구자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놀이성의 척도는 Glynn과 Webster(1992)가 개발한 품사형 측정 도구로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 등의 정서 및 인지적 측면에 제한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놀이성의 특성들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ADHD 성향에 대해 군집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임의적 결정과정이 내포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집단 분류

방법을 통해 다차원적 ADHD 집단과 놀이성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이 한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표집과정에서의 제한점으로 남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여 연구되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동화 (2012). 나쁜 뇌를 썰라. 서울: 전나무 숲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질병통계. <http://www.nhic.co.kr>에서 2016년 3월 10일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수 2013년에 비해 23.8% 증가. <http://www.nhic.co.kr>에서 2016년 3월 10일 인출.
- 김나나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실환경과 창의성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년 (2002). 경증 역치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의 특성에 관한 지역사회기반 연구. 신경정신의학, 41, 110-122.
- 박해송, 최은주 (2005). 청소년 ADHD 고위험군의 하위유형별, 기질, 기질 적합성 및 문제행동의 차이 비교. 소아·6, 106-116.
- 박현숙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2000).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심리장애의 인지 행동적 접근, 433-493.

- 신민영, 김호영, 김지혜 (2005).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24(4), 903-916.
- 원주영 (2005). 멈춤 신호 과제로 측정한 성인 ADHD의 반응억제 결핍.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리나 (2015). 성인 ADHD 성향군의 반응억제 결함에 관한 사건관련전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나 (2006).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유능감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문선 (2008). 한국판 Conners 성인 ADHD 평정척도-단축형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7(2), 499-513.
- 장원석, 홍성도, 정유숙 (200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아들의 기질 및 성격 특성.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5, 77-82.
- 정은정 (200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결함.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현 (2008). 성인의 ADHD의 인지적 특징.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5).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아동의 창의적 인지능력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윤보람 (2011). ADHD아동과 우울성향 아동의 모래놀이표현 비교.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1(3), 135-136.
- 홍승희 (2014). 대학생의 성인기 ADHD 성향과 부적응적 분노 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1), 65-94.
- Barkley, R. A., Fischer, M., Smallish, L., & Fletcher, K. (2002). The persistence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to young adulthood as a function of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279-289.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ron, F. (1988).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 Conners, C. K., Erhart, D., & Sparrow, E. P. (1999). *Conners's adult ADHD rating scales,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Health Systems.
- Cramond, B.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 Cskiszentmihayli, M. (1979). The Concept of Flow. In B Sutton-Smith(Ed). *Play and learning*. New York. Gardner Press.
- Davis, G. A. (1996). *Measuring and predicting creativity: Issues and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ntitled "the role of school, the family, and society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University of Qatar, Doha. 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illo, W., Glke, A., Prox-vagedes, V., Szyck, G. R., Roy, M., Donnerstag, F., & Ohlmeier, M. D. (2010). Neuronal correlates of ADHD in adults with evidence for compensation strategies a functional MRI study with a Go/No paradigm. *GMS German Medical Science*, 8, 1-8.
- Fisher, L. I. (1985). Learning disabilities and auditory processing. In R. J. Van Hattum (Ed.), *Administration of speech-language services in the schools* (pp. 231-292). SanDiego: College Hill Press.
- Garmeg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D.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213-233). Pergamon Press.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1-103.
- Glynn, M. A., & Webster, J. (1993). Refining the nomological the of the adult playfulness scale personality, motivational and attitudinal correlates for highly intelligent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72, 1023-1026.
- Hartmann, T. (1997). *Attention deficit disorder: A different perception*. Grass Valley, Calif.: Underwood Books.
- Hartmann, T. (2003). *The edison gene ADHD and the hunter child*. Grass Valley, Calif.: Underwood Books.
- Honos-Webb, L. (2003). *The gift of ADH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Honos-Webb, L. (2005). *The gift of ADH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Liddle, P. F., Kiehl, K. A., & Smich, A. M. (2001). Event related MRI study of response inhibition. *Human Brain Mapping*, 12(2), 100-109.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Liotti, M., Pliszka, S. R., Higgins, K., Perez, R., & Semrud-Clikeman, M. (2010). Evidence for specificity of ERP abnormalities during response inhibition in ADHD children: A comparison with reading disorder children without ADHD. *Brain and Cognition*, 72(2), 228-237.
- Mannuzza, S., & Klein, R. G. (2000). Long-term prognosis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9, 711-726.
- Murphy, K., & Barkley, R. A. (1996).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ults: Comorbidities and adaptive impairm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37(6), 393-401.
- Piechowski, M. M. (1985). Patterns of overexcitability in a group of artist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9, 153-174.
- Polanczyk, G., de Lima, M. S., Horta, B. L., Biederman J., & Rohde, L. A. (2007). The worldwide prevalence of ADH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regression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6), 942-948.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uth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LA.
- Shaw, G. A. (1992). Hyperactivity and creativity: The tactic dimension.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30(2), 157-160.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behavior. *American Psychology Bulletin*, 2, 143-156.
- Smith, J. L., Johnskone, S. J., & Barry, R. J. (2004). Inhibitory processing during the Go/NoGo task; an ERP analysi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linical Neurophysiology*, 115(6), 1320-1331.
- Weiss, L. (1997). *ADD and creativity*. NEW YORK: Taylor Trade Publishing.
- Weiss, G., & Hechtman, L. T. (1993). *Hyperactive children grown up: ADHD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New York: Guilford.
- White, H. A., & Shah, P. (2006). Training attention-switching ability in adults With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 10(1), 44-53.
- 1 차원고접수 : 2016. 04. 24.
수정원고접수 : 2016.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6. 06. 02.

Exploration of an ADHD Tendency Group among College Students and a Correlation between ADHD Tendency and Playfulness

Cho, Mee J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 ADHD tendency group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any correlation between 400 college student's ADHD tendencies and their levels of playfulness. The survey utilized the short version of Comprehensive Behavior Rating Scales and the Adult Playfulness Scale. First, the lower factors of ADHD which implied a significant impact on manifested joy and imagination, sub-variables of playfulness, were carelessness, memory problem, hyperactivity, restlessness, and self-concept problems. The variables that affected spontaneity were hyperactivity, restlessness, impulsiveness, emotional instability and self-concept problems. Secondly, in the classification of ADHD tendencies into groups, the following groups were found: a group with a possibility of slight hyperactivity and an impulsive tendency, a group with a possibility to display a tendency toward ADHD in general, a potential group revealing relatively mild hyperactivity and restlessness, a group with the possibility to experience problems related to carelessness, remembrance, and self-conception, and a group that showed almost no sign of an ADHD tendency. Finally, the group without an ADHD tendency scored highly on manifest joy, imagination and ingenuity while the group with possibility of slight hyperactivity and an impulsive tendency as well as the group with the possibility of a tendency toward ADHD in general both exhibited the highest spontaneity level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a tendency toward ADHD.

Keywords: playfulness, ADHD tendency, college student's, group, sub-variable